



금빛 재즈 선율 넘실... 제주의 봄을 열다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 개막... 21일까지 열려 젊은 작곡가들의 제주민요 소재 관악곡 창작 열기

재즈를 품은 금빛 선율이 제주의 밤을 가득 채우고 있다.

'명품 축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올해 제주국제관악제의 막이 지난 18일 올랐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봄 시즌'은 '봄을 여는 팡파르'를 주제로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각각 개막공연을 열고 도민과 만났다.

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위원장 이상철)는 지난 2021년부터 도입한 시즌제를 올해 봄과 여름 시즌으로 정착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다.

'봄 시즌'과 함께 올해 처음 도입된 '재즈 콘서트'는 지난 18일 제주아트센터에 이어 19일 서귀포예술

의전당에서 열렸다.

제주국제관악제 예술감독인 트럼펫 연주자 엔스 린더만(캐나다)을 비롯 알토색소폰 진푸름(한국), 테너색소폰 제프 안토니우크(미국), 베이스 제레미 코츠(캐나다), 피아노 폴 커비(스코틀랜드), 드럼 타이러 혼비(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는 6명의 정상급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감미롭고 경쾌한 재즈의 매력을 선사했다.

19일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난 제프 안토니우크는 첫 공연 소감을 물을 질문에 "관중들이 호응을 잘해줘서 에너지를 받은 기분이었다"고, 8년 만에 국내 공연을 가진 진푸름은 "재즈를 여



올해 첫선을 보이는 제주국제관악제 '봄 시즌'이 지난 18일 개막해 '봄을 여는 팡파르'를 주제를 내걸고 도민들과 만나고 있다.

떻게 받아들여 공감했는데 호응에 감사했고, 관객과 함께해 의미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재즈 콘서트'를 기획한 엔스 린더만 예술감독은 향후 재즈밴드와 함께하는 '랩소디 인 블루' 공연 구상을 밝히며, 첫 연주가 제주에서 이뤄지길 바랐다.

'봄 시즌'은 21일 제주아트센터

에서 열리는 젊은 작곡가들의 제2회 제주관악작곡콩쿠르 결선과 시상식으로 마무리된다. 결선엔 제주민요를 주제로 총 다섯 작품이 진출했다.

20일(오후 7시30분)에는 구좌읍 다목적문화센터에서 '재즈 콘서트'의 마지막 무대인 우리동네관악제가 예정돼 있다.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눈부신 제주 마을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전, 서울메트로미술관서 오늘부터 31일까지 전시... 마을 속 66곳 풍경 선배

제주의 빛과 아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화폭에 담긴 제주마을의 풍경이 서울 시민들을 찾아가고 있다.

양기훈 작가의 제주마을 백리백경전이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지하 1층에 위치한 서울메트로미술관 1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제

주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의 제주알리기 프로그램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전시회에서는 33개 제주마을 속 66곳의 풍경이 선보인다.

작가는 여명에서부터 일몰 이후에 이르기까지 빛의 변화를 맞이하는 마을들의 특성을 화폭에 담았다.

작가는 "그 마을 주민들이 평생을 바라보며 살아온 장면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이로움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 것"이라며 "그 속에 숨겨진 문화정체성을 주목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작가는 또한 "조상 대대로 이웃해 살아온 사람들의 공공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스케치를 하고, 색을 칠하는 과정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다"며 "단순히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그 마을이



이룩해 온 모든 삶의 역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그려려 노력했다"고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전시 개막식은 21일 오전 11시 30분이다.

제주목 관아서 즐기는 전통문화 체험

매주 주말 서예·거문고·공예 등 다채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제주목 관아에서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목 관아 관람객에게 역사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

빙해 서예·거문고·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김수애, 양춘희 서예가와 함께하는 서예체험은 오는 5월 말까지 매주 금·토요일(오후 1~3시) 운영된다. 현장 관람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며, 한지, 붓, 벼루 등 모든 재료가 완비돼 있다.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도 이뤄진다.

공예 체험은 매주 일요일(오후 1~3시) 가족과 함께 다양한 공예품(방사탑, 제주 켈, 오르골, 무드등, 불탑사 등)을 직접 만들 수 있다.

거문고 체험은 이달 22일부터 5월 말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3시 30분~5시30분) 진행된다. 김운의 강사가 거문고 연주, 거문고 타는

방법 등에 대해 지도한다.

서예와 거문고 체험은 현장 접수로 이뤄지며, 공예 체험은 만들기 재료가 한정돼 소진 시까지 가족 단위(현장 및 일부 사전 접수)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제주목 관아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5~10월엔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 및 월 1회 정기 야간공연, 버스킹 공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4·3 상흔 씻는 '위로의 노래' 건네다

이달 30일 도립합창단 제109회 정기연주회

도립 제주합창단이 다가오는 제주 4·3을 추념하며 도민들에게 '위로의 노래'를 건넨다. 이달 30일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여는 제109회 정기연주회를 통해서다.

이날 공연은 108회 연주에 이은 브람스의 걸작 시리즈 소개와 소리풍경 어린이 합창단 연주로 구성됐다.

1부는 브람스의 '여성합창, 흐른과 하프를 위한 네 개의 노래'와 '애도의 노래'를 무대에 올린다.

2부는 윤학준 작곡의 '함께', 포카혼타스 OST '바람의 빛깔'과 잔나비 원곡의 '꿈나라 별나라' 등 소리풍경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무대가 준비됐다. 3부에선 봄꽃을 주

제로 한 김소월 작사의 '진달래꽃'과 황철의 작시·곡의 '꽃 파는 아가씨'와 위로의 노래를 주제로 한 '꿈의 날개', 'Butterfly',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관람 신청은 사전 온라인 예약으로 진행되며, 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단체 4000원(10인 이상), 청소년 3000원이며,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은 증명서류 지참 시 무료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연을 통해 도민들이 4·3으로 인한 상흔을 씻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귀포예당,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공연

연극, 동화발레, 히사이시 조 영화음악콘서트 등 한문연 민간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공연 유치

서귀포예술의전당이 이번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23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인 민간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3개의 작품이 선정되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선정작은 내레이션을 가미한 동화발레 무용극 '빨간모자'(8월 19일), 지친 현대인들에 힐링의 메시지를 전하는 코미디 연극 '도둑배우'(11월 3~4일), 애니메이션부터 영화, 드라마까지 영화음악의 거장 히사이시 조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히사이시 조 OST 콘서트: 디 오케스트라'(12월 7일)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품격의 우수작품이 선정돼 수도권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지역민들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전국 방방곡곡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문화회관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

가상의 대한민국을 만들다

LX공사는 국민 삶을 바꿀 디지털트윈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공사
www.lx.or.kr